

MDI, 수출가 높아 국내공급 차질

Dow Chemical 생산량 대폭 감소 ... 한국BASF는 정기보수 돌입

MDI가 Dow Chemical의 공급물량 감소와 한국BASF의 정기보수 돌입에 따라 공급이 타이트해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Dow Chemical의 여수공장은 Crude-MDI를 정제해 생산하는 시설로 Head Quarter에서의 배정물량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ow Chemical의 국내 Crude-MDI 배정물량이 줄어든 이유는 중국 판매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나마 국내에 들어오는 Crude-MDI도 중국 수출물량에 맞춰 들어와 국내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BASF도 MDI 증설을 위한 정기보수에 돌입했는데 4월부터 6월에 걸쳐 대대적인 Debottlenecking 작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금호Mitsui화학이 정상적인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나 총 생산능력이 5만톤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한 상태이다.

국내수급이 타이트해짐에 따라 4월1일 MDI 내수가격이 톤당 20만원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월1일 15만-20만원이 상승하고 추가인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3개월에 걸쳐 총 35만-40만원 인상됐다.

현재 MDI 중국 수출가격은 FOB 기준으로 톤당 2000-2400달러 수준이며 내수가격은 230만-250만원이나 대형 수요처에는 200만-220만원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수출가격이 계속 상승해 수출가격과 내수가격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국내 수급 타이트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벤젠가격이 계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강세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MDI 공급이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MDI 생산기업 관계자는 “원료가격 강세에 국내가격은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낮아 당분간 국내에 유입되는 것보다 중국수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원료가격도 강세를 보여 중국 수출가격도 계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기석 기자>

<화학저널 2004/04/30>